



우리 시장을 겨냥하는 나라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중국의 장자(莊子)가 하루는 조능이라는 밤나무 숲속을 산책하고 있는데, 밤나무에 앉아 있는 까치 한마리를 발견하고 활을 겨냥하여 까치를 쏘려고 했다. 그런데 까치는 저 죽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까치는 자기 앞에 있는 큰 왕거미를 잡아 먹으려고 그곳에 정신을 팔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장자가 왕거미를 보니, 왕거미는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자기의 위험도 모른채 매미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본 장자는 활을 쏘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나무를 지키는 사람으로부터 밤 도둑놈으로 몰려 옥을 먹고 돌아오게 된다. 장자는 이 일로 석달동안 두문불출하고 밤나무 숲에서 있었던 일들을 곰곰히 생각하게 되었다.

장자가 까치를 잡으려고 온 정신을 까치에게 쏟았을 때 장자는 안전하였을까? 독사가 발 뒷굽치를 물려고 장자를 노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너무 한가지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게 되고, 자기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된다.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양계, 양돈은 국제경쟁력이 있고, 특히 양돈은 우리 이웃에 연간 50만톤 가까이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황금시장이 있으니 양돈산업의 미래는 장미빛이다. 더군다나 일본시장에서 냉장육의 가격은 냉동육보다 훨씬 비싼데, 지리적으로 한국은 일본국내 생산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시장은 우리의 밥이다. 냉장육으로 수출하는데는 우리밖에 또 누가 있겠는가.

UR협상이 타결되고 돼지고기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지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일본시장을 공략하자. 대개 이런 분위기가 양돈업계에 깔려 있었고, 그래서 종돈구입, 시설확장 등에 활기를 띠고 한때나마 기분이 좋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미국이 일본에 냉장 돼지고기 14,000여톤을 수출함에 따라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94년부터, 정확히 13개월 후에는 우리도 냉장 돼지고기 수입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시장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미국은 우리의 밥인줄 알고 있던 일본시장을 잠

“

우리가 일본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미국은 우리의 밥인줄 알고 있던 일본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발뚧굽치를 물려고 연구·조사하며 활시위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

식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서 우리의 발뚧굽치를 물려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활을 개량하여 활시위를 당길 시기를 94년 1월1일로 잡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금년 일본에 수출한 냉장 돼지고기 가격이 비싼 (일본 도착 통관후 정육 1kg당 약 5,000원) 안심, 등심 부위이고, 우리가 선호하는 삼겹살은 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냉장 삼겹살이 수입될 경우 kg(정육)에 2,500~3,000원이면 가능해져 우리 시장이 크게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쌀시장은 한국농업을 대표하고, 한국문화의 일부이며, 농산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쌀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지만, 일본의 경우 쌀을 지키는데 정신을 쏟다보면 다른 공산품 수출에 타격을 입는다고 쌀수입 개방을 기정사실화 해나가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장자(莊子)가 밤나무 밑에서 밤도둑 누명을 쓴 것처럼,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국제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나라로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너무 한가지에 골몰하거나 한가지에 탐욕이 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위협에 처하게 된다. 돈 버는데에만 정신을 쏟으면 출하전까지 항생제·설파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소비자들이 양돈업자에 활을 당기는 계기가 된다.

관세, 부가세 영세율 적용(생산자제에 대한)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된다. 이제 양돈인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다른 농축산물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목전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위협을 보지 못하게 된다.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해서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와 같이 불황뒤에 호황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94년의 수입개방 때문이다. 수입개방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삼겹살, 목등심, 돼지장죽 등 우리가 선호하는 부위가 수입될 경우 다른 부위의 생산비가 높아져야 경쟁이 되기 때문에 종돈개량, 돼지고기 유통 등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전체 돼지값의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자급률이 떨어져 수입물량의 대폭 증가로 콩이나 밀농사에서와 같은 현상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이제는 단기적인 어떤 목적에서 사업을 바라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며, 우리가 처한 위기를 올바르게 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까치도 잡지 못하고 밤나무 밑을 지나다 도둑의 누명을 쓰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장자(莊子)에게서 우리 축산인들은 배울 것이 많이 있다.